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 순천 신대지구

# 택지·상업용지 내달 분양

#### 생태 숲·외국인 단지 갖춘 명품도시로 개발

순천에코벨리는 신대지구를 폭 30m·길이 6km의 생태 회랑을 갖춘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해 1만1천세대·3만여명을 수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주택, 18층 골프장, 문화시설, 수변공원,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외국계 병원과 외국인 학교, 국제업무시설 등을 갖춘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전망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택지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대 신대지구(299만7천95㎡·90만6천6평)의 공동주택용지 8개 필지(52만5천525㎡)일부와 상업·업무 시설 용지 64필지(8만4천260㎡)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건물 높이가 20층 이하로 제한되는 중층 지구(14만6천723㎡)와 층수 제한이 없는 고층 지구(37만8천802㎡)로 구성돼 있다.

순천에코벨리는 특히 최근 외국 의료기관 늘푸른 의료재단 컨소시엄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외국계 병원 유치에 본격화했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신대지구가 침체한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호재로 보고 있다. 광양



순천 신대지구 조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배후단지라는 개발 목적에 걸맞게 외국인 병원 및 학교와 국제업무시설 등을 갖춘 고품격 생태도시로 꾸며진다.

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아파트값과 토지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신대지구 분양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다터아파트'에 따르면, 전남도 내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난해 광양 지역은 7.11% 상승했다. 지난해 토지 거래건수는 전년 대비 광양이 27%, 순천이

37% 늘었으며 두 지역 모두 2%대의 팽창 상승률을 보였다.

순천에코벨리 권종문 대표는 "신대지구는 광양권은 물론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며 "2012년 개최될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로 인한 개발 후광 효과도 기대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 문의 061-722-722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금융주 등 내수주 매수 유망 IT주는 차익실현 고려할 만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시즌에 몰입하는 만큼 각종 경제지표들과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국내증시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긍정적 영향으로 결국 주간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었다. 이번 FOMC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수급급도가 다시금 개선된 점이 최대의 수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지난 13일 G8 재무장관 회담에서 '출구전략'(유동성 회수 정책)이 불거진 이후로 한국과 대만 등 주요 이머징 마켓에서 나타났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FOMC회의 이후 다시금 대규모 순매수로 돌아왔다.

향후 달러화 약세흐름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중심의 양호한 수급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국인의 귀환과 더불어 또 하나의 수급축으로 기대되는 변수는 프로그램 매수다. 시장의 황보세로 늘어나기 시작한 5월초 이후로 프로그램 매도차익잔고는 2조5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2조원 가량 급증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살 버티면서 향후의 상승 동

력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나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는 앞으로 이들 매도차익거래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수세의 유입이 기대된다.

다들 입을 모아 이제부터는 실적이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실적과 관련하여 기대감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IT주다. IT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가 다시금 60만원을 넘보고 있고, LG 전자나 삼성전기 등은 전 고점에 육박하거나 아예 신고가 행진이다.

중소형주도 상대적으로 IT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는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제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차익매물로 주가의 탄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다반사다.

그런 이유로 IT주에 대해서는 추가상승이 좀 더 나으려도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금융환경 개선으로 리스크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은행, 증권주 등 내수주

중심의 공략을 권한다.



박종모  
국토농신한  
증권 광주지  
점장

# 주택담보대출 깎깐해진다

#### 금융당국 하반기부터 은행별 대출총액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사실상 은행별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미 대출 축소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최근 은행들로부터 하반기 월별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대출 목표치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최근과 같은 추세로 계속 급증하면서 경기가 더디게 회복하거나 또 한 번 침체에 빠지면 가계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부실이 심화하고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이번 월별 점검은 대출 총량 규제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목표를 올해 상반기나 예년에 비해 높게 잡은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축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3조 원씩 늘어 주택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6년의 월평균 2조2천억 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금감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금감원이 권고하는 가운데 농업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최대 1조5천억 원(월평균 2천

50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조9천억 원 늘린 신한은행은 하반기 목표를 1조6천억 원으로 잡았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상반기와 비슷한 6천억~7천억 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일정 금액 이상의 분점 승인이나 영업점장 전격 위대금리의 축소 등 대출 심사 기준의 강화도 주문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상반기 추정보다 18조 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10 17 29 31 43	15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717,153,00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9,212,173	29
3 5개 숫자 일치	1,566,746	1,096
4 4개 숫자 일치	63,842	53,794
5 3개 숫자 일치	5,000	931,340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주	334645
2 1억	5주	871144
	2주	121675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주	34412
5 50만	각주	5285
	각주	04
6 2천	각주	15
	각주	73
	각주	1
7 1천	각주	3
	각주	6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 백두산

무인 + 가연집 직항

7.25 ~ 8.15

항목	비율
1등	1%
2등	2%
3등	3%
4등	4%
5등	5%
6등	6%
7등	7%
8등	8%
9등	9%
10등	10%

062-226-6070